

마가복음 1:1의 본문 비평과 번역

신현우*

1. 시작하는 말

이 논문의 목적은 마가복음 1:1을 번역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마가복음 1:1의 원래의 형태를 복원한 후, 그 의미와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 번역 가능성의 장단점을 고려할 것이다. 성서번역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 논문이 선택하는 번역 목적은 본문의 의미를 현대 한국인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1은 기존의 성경번역들에서 다음처럼 번역되었다.¹⁾

『개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개역개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표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공동』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한글 번역본들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복음’과 ‘기쁜 소식’ 정도이다. 그런데, 네덜란드성서공회에서 1951년에 출판한 NBG(Nederlands Bijbelgenootschap Vertaling, 1951)는 ‘하나님의 아들’을 빼고, ‘Begin van het Evangelie van Jezus Christus’(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라고 번역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NBG처럼 빼는 것이 옳은지도 다루어져야 한다.

마가복음 1:1에서 ‘시작’이란 단어는 매우 어색하다. 굳이 ‘시작’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독자들은 마가복음이 시작한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이다. 과연 마가가 이렇게 불필요한 진술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시작’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여 문맥에도 맞고 독자에게 유의미한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부교수, 신약학.

1) 본 논문은 성서 번역본을 언급할 때 「성경원문연구」에서 정한 약어를 사용한다. 「성경원문연구」 28 (2011), 297-298의 약어표 참조. 이 약어 목록에 없는 번역본의 경우에는 첫 언급 때 전체 이름을 밝힐 것이다.

정보를 전달하도록 번역할 수는 없을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성서를 처음 읽는 사람이 알기 어려운 용어이다. 이러한 용어 대신 독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선택할 수는 없을까? 영어 성경번역 NLT는 이를 ‘Messiah’(메시아)로 번역한다. 한글 번역에서도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를 택할 수는 없을까?

드 프리스(Lourens de Vries)가 제안한 성서 번역 이론인 스키포스(skopos) 이론에 의하면, 성서 번역을 위해서는 번역본을 사용할 공동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공동체에 동일한 번역을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성서 번역은 그것을 사용하게 될 대상 공동체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²⁾ 성서 내용에 익숙한 교회와 성서에 담긴 내용을 잘 모르는 세상에 동일한 번역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 논문은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교회에 적합한 번역과 세상에 적합한 번역을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마가복음 1:1에 관한 본문 비평과 주해를 토대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면서 마가복음의 1:1에 관한 새로운 번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문 비평³⁾

성서번역을 위해 필요한 첫 단계는 본문 비평, 즉 원본문 복원 작업이다. 원본문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사본들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읽기들(즉 이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이문들 중에서 원래의 읽기를 선택해야 한다. 네스틀레-알란트(Nestle-Aland) 27판(*Novum Testamentum Graece*, eds. B. Aland *et a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은 마가복음 1:1에서 다음과 같은 이문들을 소개한다.

(1)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θεοῦ	κ ¹ B D L W 2427 <i>pc</i> latt sy co; Ir ^{lat}
(2)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τοῦ θεοῦ	A ^{f.13} 33 9k
(3)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τοῦ κυρίου	1241
(4)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κ* Θ 28. l 2211 <i>pc</i> sa ^{ms} ; Or
(5) - (없음)	Ir Epiph

2) 이러한 이론에 관하여는 L. de Vries, “Translations of the Bible and Communities of Believers”, 『성경원문연구』 23 (2008), 172-195 참조.

3) 본문 비평 부분은 줄져, 『마가복음의 원문을 찾아서』(서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2006), 21-29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 발전시킨 것이다.

위의 이문들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마가복음 1:1의 번역은 달라진다. (1)과 (2)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3)은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4)는 ‘예수 그리스도의’로 번역된다.

대부분의 번역성경들은 (1)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포함한다. (4)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번역에 담지 않는 번역은 네덜란드성서공회에서 1951년에 출판한 NBG 등 극소수뿐이다. 한글 성경의 경우 『표준』, 『개역개정』, 『공동개정』 등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또는 ‘하느님의 아들’)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마가복음 1:1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번역문에 담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선택하려면 (1)/(2)와 (4) 중에서 어느 것이 마가복음의 원래의 읽기였는지 판단하는 본문 비평이 필요하다. 학자들의 본문 비평 작업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네스틀레-알란트 27판의 본문은 (1)과 (4) 중에 선택하지 못하고 υιοϋ θεου [] 속에 넣었다. 티센도르프(C. Tischendorf)가 편집한 본문(8판)과 네스틀레-알란트 25판, 홈즈(M. W. Holmes)가 편집하고 세계성서학회(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가 2010년에 출판한 헬라어 신약성서(SBLGNT)는 (4)를 택하였고,⁴⁾ 포겔스(H. J. Vogels), 메르크(A. Merk), 보퍼(J. M. Bover)가 편집한 본문들은 모두 (2)를 택하였다.⁵⁾

위의 읽기들 중에 (3)과 (5)는 원래의 읽기가 아님이 거의 분명하다. 12세기 사본 1241에 의해 지지받는 (3)은 외증이 약하다. (3)은 선본(先本, *Vorlage*, 필사자가 필사할 때 앞에 놓고 베낀 사본)에 담긴 ‘하나님’이란 표현을 ‘주’라고 바꾸어 읽음으로써 발생했을 것이다. (5)도 외증을 고려하여 제외시킬 수 있다. 중요한 헬라어 사본들의 지지 없이 이레네우스(Irenaeus, 2세기)와 에피파니우스(Epiphanius of Constantia, ?~403)의 인용만으로 (5)의 원문성을 주장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5)는 유사종결(*homoeoteleuton*, 단어나 어구의 끝이 유사한 현상) -ou에 의한 착시 현상으로 인해 (1), (2), (3) 또는 (4)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필사자의 눈이 바로 앞에 나오는 εὐαγγελίου 의 ou에서 Χριστοϋ 나 θεοϋ 의 ou로 옮겨가며 그 사이에 있는 단어들을 빠뜨렸을 것이다. 크로이(N. C. Croy)는 1절 전체가 필사자의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⁶⁾ 1절을 전부 빠뜨린 사본은 하나도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M. W. Holmes, ed., *The Greek New Testament* (Atlanta: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0), 67.

5) B. Aland, et al., eds., *Novum Testamentum Graec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751.

6) N. C. Croy, “Where the Gospel Text Begins: A Non-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Mark 1:1”, *NovT* 43 (2001), 119-125.

나머지 읽기들인 (1), (2), (4)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담은 (1)과 (2)가 원래의 읽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마가복음을 필사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중요한 신학적 용어를 의도적으로 생략했을 리 없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들의 신앙에 따라 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마가복음의 중심 메시지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추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마가복음 1:1은 마가복음의 본래적 제목이다(아래의 주해 참조). ‘마가복음’(εὐαγγέλιον κατὰ Μάρκον)이란 표현은 나중에 필사자들이 다른 복음서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 책에 붙인 제목일 것이다. 이러한 제목은 후기 사본들에서나 등장하며, 초기(4세기) 사본들인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는 KATA ΜΑΡΚΟΝ(‘마가에 의한’)이란 표현이 등장하지만, 본래의 필사자의 필체가 아니므로 나중에 첨가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⁷⁾

메쯔거(B. M. Metzger)에 의하면 책의 제목이 필사자들에 의하여 길어지는 경향성이 있었다.⁸⁾ 그는 요한계시록의 제목의 경우를 그 증거로 든다.⁹⁾ 이러한 경향성은 짧은 읽기인 (4)가 원래의 읽기임을 지지한다.

물론 υἱοῦ θεοῦ 또는 υἱοῦ τοῦ θεοῦ(‘하나님의 아들’)는 유사종결에 의해 실수로 생략되었을 수 있다. 끝이 동일하게 ου로 끝나기 때문에 필사자의 눈이 Χριστοῦ(‘그리스도’)에서 θεοῦ(‘하나님’)로 넘어가며 그 사이에 있는 υἱοῦ θεοῦ(‘하나님의 아들’)를 빠뜨렸을 수 있다. 초기 사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아들’ 등의 단어를 축약된 형태(nomia sacra)로 사용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혼동의 가능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필사자의 눈이 ΙΥΧΥ(‘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예수 그리스도’)까지 필사하고 끝이 유사한 ΥΥΘΥ(υἱοῦ θεοῦ)로 넘어갈 수 있었다.

ΑΡΧΗ ΤΟΥ ΕΥΑΓΓΕΛΙΟΥ ΙΥΧΥ ΥΥΘΥ
ΑΡΧΗ ΤΟΥ ΕΥΑΓΓΕΛΙΟΥ ΙΥΧΥ

그러나 정신을 가다듬고 마가복음을 필사하기 시작한 필사자가 첫 절부터 이러한 실수를 했을 리는 없다.¹⁰⁾ 경험적 연구는 이러한 추측을 지지한다. 어만(B. D. Ehrman)에 의하면, “최근의 사본 분석들은 참으로 필사자들이 문서

7) B. Aland, et al., eds., *Novum Testamentum Graece*, 721.

8) B.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62.

9) *Ibid.*, 62 n.1.

10) P. M. Head, “A Text-critical Study of Mark 1.1”, *NTS* 37 (1991), 629: “One does not ... expect errors due to tiredness in the first verse of a work.”

의 초두에서 더욱 세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¹¹⁾ 게다가, 헤드(P. M. Head)의 관찰에 의하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본문으로부터 생략된 경우는 없으며 오히려 추가된 경우는 있다.¹²⁾ 와서만(T. Wasserman)은 헤드를 논박하기 위해 헤드가 제시한 ‘하나님의 아들’이 추가된 경우들을 검토하여 이 경우들이 실제로 추가된 경우가 아님을 지적한다.¹³⁾ 그러나 헤드가 제시한 경우 중에 마가복음 8:29는 여전히 유효하다. 와서만은 마가복음 8:29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추가는 마태복음의 평행구절(16:16)에 조화된 것이므로 적합한 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¹⁴⁾ 그러나, 평행구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해서 필사자들이 반드시 평행구절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 필사되기 전에 이미 필사되기 시작했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초기 필사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추가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마태복음이 필사된 이후에라도 마가복음 필사자들이 마태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였을 시기가 존재한다. 마태복음을 알았다고 해도 반드시 마태복음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백보 양보하여 와서만의 주장처럼 마가복음 8:29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추가된 읽기가 마태복음 16:16에 조화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태복음 16:16 자체는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하여 편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추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초기 필사자도 이러한 경향성을 가졌을 것이다. 와서만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자 ‘하나님의’가 생략된 경우들을 제시하였고,¹⁵⁾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생략된 경우들이 있음도 제시하지만,¹⁶⁾ ‘하나님의 아들’이 생략된 부분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나중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1)의 υιοῦ θεοῦ(‘하나님의 아들’)는 마가복음의 문체에 맞지 않는다. 물론 마가복음 15:39는 υἱὸς θεοῦ(‘하나님의 아들’)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정관사가 없는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했을 로마인 백부장의 말을 인용한 부분에 등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마가의 문체를 반영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다른 곳에서 마가복음은 11:22(πίστιν θεοῦ)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11) B. D. Ehrman, *The Orthodox Corruption of Scrip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73. 어만은 증거로 P. R. McReynolds, “Establishing Text Families”, W. D. Flaherty, ed., *The Critical Study of Sacred Text* (Berkeley: Graduate Theological Union, 1979), 97-113을 제시한다.

12) P. M. Head, “A Text-critical Study of Mark 1.1”, 627.

13) T. Wasserman, “The ‘Son of God’ Was in the Beginning (Mark 1:1)”, *JTS ns* 62 (2011), 48.

14) *Ibid.*, 48.

15) T. Wasserman, “The ‘Son of God’ Was in the Beginning (Mark 1:1)”, 49.

16) *Ibid.*, 47.

θεοῦ(‘하나님의’) 앞에 정관사 τοῦ(‘그’)를 붙인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언제나 θεοῦ(‘하나님의’) 앞에 정관사 τοῦ(‘그’)를 붙인다. 마가복음 3:11(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과 5:7(υἱὲ τοῦ θεοῦ)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1)의 υἱοῦ θεοῦ(‘하나님의 아들’)는 마가복음의 문체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도 필사자에게서 유래하였을 것이다.

필사자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추가했을까? 아마도 신학적인 고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마가복음 1:11에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씀이 나온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므로 여기서 ‘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나[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렇다면, 그 전에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 아니면 세례 받는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 어만(B. Ehrman)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양자론적 기독교론을 반대하는 필사자들이 마가복음 1:11을 양자론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추가했다고 주장한다.¹⁷⁾ 필사자들이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마가복음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다. 구약에서 왕은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로 간주되는데(시 2:7; 89:27), 마가복음 9:7에 이 선언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입양 선언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선언으로 볼 수 있다.¹⁸⁾ 입양이 반복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사자들은 이러한 해석을 방지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1:1에 추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필사자들은 다른 이유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을 추가했을 수도 있다. 허치슨(D. Hutchison)이 지적하였듯이 양자론적 기독교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마가복음의 주제를 잘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추가했을 수도 있다.¹⁹⁾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마가복음의 주제이므로(막 1:11; 3:11; 8:38; 9:7; 12:6; 14:61; 15:39), 이 설명은 적절하다. 이러한 설명들을 따르면 (1) 뿐만 아니라 (2)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가지므로 원래의 읽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의 υἱοῦ τοῦ θεοῦ(‘그 하나님의 아들’)는 위에서 언급한 마가복음의 문체에 맞는다. 그렇다면 (2)는 원래의 읽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

17) B. D. Ehrman, *The Orthodox Corruption of Scripture*, 74

18) M. D. Hooker,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London: A. & C. Black, 1991), 48.

19) D. Hutchison, “The ‘Orthodox Corruption’ of Mark 1:1”, *Southwestern Journal of Theology* 48 (2005), 48. 그러나 허치슨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의 읽기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

지만, 이것이 원래의 읽기였을 경우, 필사자들이 일부러 정관사를 빼고 (1)처럼 만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즉 (2)로부터 (1)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역으로 (1)로부터 (2)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설명할 수 있다. 필사자들은 정관사가 없는 $\upsilon\iota\omicron\upsilon\ \theta\epsilon\omicron\upsilon$ (‘하나님의 아들’)가 마가복음의 문체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또는 표준적 헬라이어 표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²⁰⁾ 정관사 $\tau\omicron\upsilon$ (‘그’)를 추가하여 $\upsilon\iota\omicron\upsilon\ \tau\omicron\upsilon\ \theta\epsilon\omicron\upsilon$ (‘그 하나님의 아들’)를 만들었을 것이다. (2)를 지원하는 외증 중에 초기 사본이 없다는 것도 이러한 판단을 지원한다.

비록 (1)이 주요 초기 사본(4세기)인 바티칸 사본(B)을 비롯하여 베자 사본(D), 라틴어 역본(latt) 등 폭넓은 외증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내증은 (1)을 지지하지 않는다. 더구나 4세기 사본인 시내산 사본(⌘)과 2세기 교부 오리젠(Origen)의 마가복음 1:1 인용이²¹⁾ (4)를 지지하므로 (4)의 외증이 약하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와서만이 잘 지적하였듯이 시내산 사본에는 빠뜨리는 경향성이 있기에²²⁾ 이 사본이 짧은 읽기를 지지할 때에는 증거력이 약하다. 그러나 시내산 사본이 다른 사본보다 짧은 읽기를 가진 곳이 모두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시내산 사본은 때로 추가하기도 한다. 시내산 사본은 마가복음 8:29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대신에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추가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시내산 사본이 1:1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부러 빠뜨렸을 리가 없다. 또한 사히딕 역본 사본 하나(sa^{ms})가 시내산 사본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빠진 읽기를 지원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읽기가 이집트 지역에 초기부터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집트 지역의 사본들과는 다른 계열의 사본인 코리데티(Koridethi) 사본(Θ)의 지원은 이러한 읽기가 이집트 지역에서 비로소 발생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와서만이 관찰한 바와 같이 다양한 교부들(Victorinus, Serapion, Basil of Caesarea, Cyril of Jerusalem, Asterius Ignotus, Hesychius), 팔레스타인 시리아어 역본과 아르메니아어 역본, 조지아어역 1차 교정본, 한 아랍어 역본(Sin. Ar. N.F. Parch. 8)이 (4)를 지원한다.²³⁾

20) A. Globe, “The Caesarean Omission of the Phrase ‘Son of God’ in Mark 1:1”, *HTR* 75 (1982), 217.

21) 글로브(A. Globe)의 연구에 의하면 오리젠은 마가복음 1:1의 짧은 읽기(Ἀρχὴ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만을 알고 있었다(A. Globe, “The Caesarean Omission of the Phrase ‘Son of God’ in Mark 1:1”, 213).

22) T. Wasserman, “The ‘Son of God’ Was in the Beginning (Mark 1:1)”, 45.

23) *Ibid.*, 34, 39.

와서만은 더 폭넓은 교부의 인용 및 역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포함한 읽기를 지원한다고 지적하지만,²⁴⁾ 이것은 정관사의 유무의 차이를 무시하고 (1)과 (2)를 지원하는 증거를 합한 것이다.²⁵⁾ (1)만 지지하는 것을 추리면, \aleph^1 B D L W 2427 Severian 등 소수뿐이다.²⁶⁾ 네스틀레-알란트 27판은 라틴어 역본들 (latt), 시리아어 역본들(sy), 콥트어 역본들(co), 이레나이우스 작품의 라틴어 번역(Ir^{lat}) 등이 (1)을 지지하는 것으로 언급하지만, 글로브(A. Globe)의 관찰에 의하면 이것들은 (2)를 지원할 수도 있는 읽기이다.²⁷⁾ 물론 (2)는 (1)에 정관사 하나를 추가한 것이므로 결국 (1)을 지지하는 읽기이다. 따라서 (2)를 지지하는 외증은 결국 (1)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을 명확히 지지하는 외증을 추려보면 (4)를 지지하는 외증보다 결코 강하다고 볼 수 없음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증과 외증을 함께 고려하여 (4)를 원래의 읽기로 선택할 수 있다. 아마도 마가복음 1:1의 원래의 본문은 Ἀρχὴ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이었을 것이다.²⁸⁾

3. 주해와 번역

위에서는 우리는 마가복음 1:1을 번역하기 위한 기초로서 1:1의 본문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Ἀρχὴ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의 번역을 위해서는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며, 따라서 주해적 연구가 필요하다.

3.1. 제목인가? 본문의 일부인가?

주해의 첫 단계는 표점(標點)이다. 즉, 단어를 띄어 쓰고 구두점을 찍는 작업이다. 신약성서가 기록되던 시기는 물론 그 이후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²⁹⁾ 현존하는 신약성서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

24) Ibid.

25) Ibid., 22.

26) A. Globe, “The Caesarean Omission of the Phrase ‘Son of God’ in Mark 1:1”, 214.

27) Ibid., 214.

28) 성서번역자 슬롬프(J. Slomp)는 이 짧은 읽기를 선택하며, 이러한 선택이 비기독교인 독자가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하는 첫 절부터 결립돌에 걸리는 것을 피하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J. Slomp, “Are the Words ‘Son of God’ in Mark 1.1 Original”, *The Bible Translator* 28:1 (1977), 150.

29) 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R. W. Funk trans. and

들에는 띄어쓰기가 없으며, 후기 사본들에도 띄어쓰기가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다.³⁰⁾ 인쇄된 헬라어 성서판본들은 띄어쓰기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편집자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신약성서에 본래 구두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며, 있었다면 어디에 어떻게 찍혔는지 모른다.³¹⁾ 오늘날 헬라어 성서판본들에 찍힌 구두점은 편집자들이 찍은 것이다.³²⁾ 이것은 이미 편집자의 해석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성서 주해를 할 때 신약성서 판본들의 띄어쓰기나 구두점을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여러 표점 가능성 중에서 원래 저자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표점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9:12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문장에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붙일 수 있다. 개역개정판은 이것을 평서문으로 번역하여 본문의 흐름을 놓치게 한다. 네스틀레-알란트 27판은 이 문장을 평서문으로 간주하고 구두점을 찍어서 이러한 번역을 유도한다. 그러나 이 문장은 의심을 제기하는 의문문으로 읽을 때 이어지는 문장과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그렇다면 어찌 인자가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 본문에 담긴 논리는 귀류법이다.

1.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A).
2.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면 인자가 고난 받지 않는다(A → B).
3. 구약성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해야 한다고 기록한다(~B).
4. 그러므로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A).

중국 문헌 필사의 경우에 저자가 붙인 제목이 필사과정에서 본문으로 오해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제목을 본문으로부터 떼어내어 구분해야 제대로 이해된다. 양수달은 『古書疑義舉例續補』(고서의의거례속보)의 제1권 “文中有標題例”(문중유표제례)에서 『管子』(순자) <修身篇>(수신편)의 扁善之度(편선지도, “항상 알맞은 법도”)를 본문의 일부가 아니라 제목으로 볼 때 문리가 잘 통함을 지적한다.³³⁾

마가복음 1:1은 어떻게 표점해야 하는가? 위에 언급한 중국 문헌의 경우에

revis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BDF], §12.

30) BDF, §12.

31) BDF, §16.

32) Ibid.

33) 周大璞, 『训诂学初稿』, 第三版, (武汉: 武汉大学出版社, 2007), 257에서 재인용.

서처럼, 마가복음 1:1은 마가복음 본문의 초두가 아니라 제목으로 표점할 수 있다.³⁴⁾ 마가복음 1:1은 관사 없이 시작하며, 동사도 없기 때문이다. 헬라어에서 동사가 없는 문장이 가능하지만, 단락의 시작 지점에 계사가 없는 명사 구문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³⁵⁾ 관사 없는 구문(anarthrous construction)은 종종 제목에 쓰인다. 신약성서와 구약 70인역(정경 및 외경)에서 그러한 예가 많이 발견된다.³⁶⁾

물론 하박국 1:1(Τὸ λῆμμα ὃ εἶδεν Ἀμβακουμ ὁ προφήτης, ‘하박국 선지자가 본 계시’)이나 예레미야 1:1(τὸ ῥῆμα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말씀’)의 경우처럼, 관사가 있는 구문도 제목에 쓰이기도 했지만, 관사가 없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마가복음 1:1은 마가복음 서두 단락의 제목인가? 아니면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인가? 아마도 서두 단락의 제목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헬라 문헌에서 ἀρχή가 서두의 제목으로 사용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³⁷⁾ 또한 마가복음은 다른 곳에서 단락 제목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³⁸⁾ 만일 마가복음의 서두의 제목이 ‘복음의 시작’이라면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이다.³⁹⁾ 그러나 ‘복음’(εὐαγγέλιον)은 마가복음 기록 이전에 아직 책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지 않았으므로⁴⁰⁾ 마가복음에서도 이 단어는 문학적 장르나 그러한 장르의 책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아니었다. 따라서 εὐαγγέλιον은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바 내용을 가리키며 문학적 장르로서의 마가복음이나 책으로서의 마가복음을 가리키지 않는다.⁴¹⁾ 그러므로 1절은 서두의 제목

34) 참조, M. E. Boring, “Mark 1:1-15 and the Beginning of the Gospel”, *Semeia* 52 (1991), 50.

35) N. C. Croy, “Where the Gospel Text Begins”, 113.

36)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한 책,’ 마 1:1), Ἀποκάλυψ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 1:1), Παροιμίαι Σαλωμώντος υἱοῦ Δαυὶδ ὃς ἐβασίλευσεν ἐν Ἰσραὴλ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들,’ 잠 1:1), Ῥήματα Ἐκκλησιαστοῦ υἱοῦ Δαυὶδ βασιλέως Ἰσραὴλ ἐν Ἱερουσαλὴμ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손 전도자의 말씀,’ 전 1:1), Λόγοι Νεεμια υἱοῦ Ἀχαλία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씀,’ 느 1:1), Λόγος κυρίου ὃς ἐγενήθη πρὸς Ὠσηε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 호 1:1), Λόγοι Ἀμωσ (‘아모스의 말씀,’ 암 1:1), Λόγος κυρίου ὃς ἐγενήθη πρὸς Ἰωηλ τὸν τοῦ Βαθουηλ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 율 1:1), Ὅρασις Ἀβδίου (‘오바댜의 묵시,’ 율 1:1), Λήμμα Νικευη βιβλίου ὀράσεως Ναουμ τοῦ Ἐλκεσαίου (‘니느웨에 대한 경고: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책,’ 나 1:1), Λόγος κυρίου ὃς ἐγενήθη πρὸς Σοφονιαν (‘스바냐에게 임한 주의 말씀,’ 습 1:1), Λήμμα λόγου κυρίου (‘주의 계시의 말씀,’ 말 1:1), Ὅρασις ἣν εἶδεν Ἡσαιας υἱὸς Ἀμωσ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묵시,’ 사 1:1), ᾠδῆματα ἁμαρτῶν ὃ ἐστὶν τῷ Σαλωμων (‘솔로몬의 노래들 중의 노래,’ 아 1:1), Βίβλος λόγων Τωβιτ (‘토빗의 말씀을 담은 책,’ 토빗 1:1)

37) M. E. Boring, “Mark 1:1-15 and the Beginning of the Gospel”, 51.

38) Ibid., 51.

39) Ibid.

40) M. D. Hooker,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33.

41) M. E. Boring, “Mark 1:1-15 and the Beginning of the Gospel”, 51 참조.

이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궈리히(R. A. Guelich)는 1절과 2절이 서로 연결되므로, 1절 끝에 쉼표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²⁾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1절의 ἀρχή가 정관사를 가지지 않는 것이 어색하다.⁴³⁾ 궈리히가 2절이 1절에 연결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2절의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마치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가 언제나 앞에 연결되어 사용되기 때문이다.⁴⁴⁾ 그러나 저자들은 저마다 독특한 문체를 구사하므로, 마가가 반드시 이러한 용례를 따라야 했을 필연성은 없다. 물론 마가복음의 다른 곳에서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는 앞 문장과 연결된다(막 9:13; 14:21). 그러나 이 표현이 마가복음의 다른 곳에서 사용된 용례는 두 번뿐이므로 이 두 번의 용례를 보편화시킬 수는 없다. 마가가 두 번은 앞 문장과 연결시키고 한 번은 뒤에 나오는 문장과 연결시켰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가능성은 καθὼς(‘마치 ~와 같이’) 절이 뒤에 나오는 문장과 연결되는 용례(눅 11:30; 17:26; 요 3:14; 고전 2:9)에 의하여,⁴⁵⁾ 지지된다. 마가복음의 구조도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한다. 3절과 4절에는 ‘광야에서’가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평행 구조를 가진다. 3절과 4절의 평행 구조 속에서 평행이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3절	4절
소리	요한
광야에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를 주고
그의 소로들을 곧게 하라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러한 평행구조는 2-3절에 인용되고 있는 구절이 4절과 비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καθὼς 절(2-3절)이 1절이 아니라 4절과 연결된다고 보아야 한다.

네스틀레-알란트 27판은 마가복음 1:1을 제목이 아니라 본문의 일부인 것처럼 정렬하였다. 또한 마가복음 1:1의 끝에 마침표를 찍었으므로, 이것은 명사 구문으로서 하나의 문장인 것처럼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제목으로 본다면 번역을 할 때,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며 좀 더 큰 활자로 중앙에 정렬하고, 1절과 2절의 사이에는 한두 줄을 띄어야 한다.

42) R. A. Guelich, “‘The Beginning of the Gospel’ Mark 1:1-15”, *Papers of the Chicago Society of Biblical Research* 27 (1982), 6.

43) N. C. Croy, “Where the Gospel Text Begins”, 113.

44) R. A. Guelich, “‘The Beginning of the Gospel’ Mark 1:1-15”, 6.

45) V. Taylor,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London: Macmillan, 1955), 153.

3.2. ἀρχή - 시작인가? 기초인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1:1을 번역하기 위해 원본문을 확정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본문에서 제외했고, 제목으로 표점해야 함을 파악했다. 이제 번역을 위해 마가복음 1:1에 담긴 단어의 뜻을 연구해야 한다. 마가복음 1:1에서 ἀρχή는 “시작”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을까? 아니면, “기초”를 가리킬까?

실제로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ἀρχή를 ‘시작’에 해당하는 단어로 번역하였다. 영어 성경번역들(DBY, DRA, GNV, KJV, NAB, NIV, NJB, NKJ, NRS, RSV, YLT, WEB[The Webster Bible, 1833], ESV[English Standard Version, 2001] 등)은 ἀρχή를 ‘beginning’(시작)으로 번역했고, 독일어 성경번역들(EIN, LUO, LUT, ELB[Revidierte Elberfelder, 1993], ELO[Unrevidierte Elberfelder, 1905], L45[Luther Unrevidierte, 1545], SCH[German Schlachter Version, 1951] 등)은 이 단어를 ‘Anfang’(시작)으로 번역했다. 프랑스어 성경번역들(FBJ, LSG, NEG, TOB, DRB[French Version Darby, 1885] 등)은 이 단어를 ‘commencement’(시작)로 번역했고, 네덜란드어 성경번역의 경우에는 LEI(Leidse Vertaling, 1912/1994)는 ‘aanvang’(시작)으로 NBG, SVV (Statenvertaling, 1637) 등은 ‘begin’(시작)으로 번역했다. 한국어 성경번역들(『개역』, 『개역개정』,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표준』, 『공동』, 『공동개정』 등)은 ‘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번역했다.

70인역의 ἀρχή 용례도 마가복음 1:1 번역에 힌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호세아 1:2(ἀρχή λόγου κυρίου πρὸς Ὠσηε)에 마가복음 1:1과 유사한 표현이 등장한다.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 본문의 표현은 $\text{הַשֵּׁשׁתִּים הַשְּׁבַעִתִּים הַשְּׁמֹנֶתִּים הַשְּׁלֹשִׁים}$ (“호세아를 통한 여호와와의 말씀의 시작”)이므로 ἀρχή는 “시작”(תְּחִלָּה)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비를 통해 마가복음 1:1의 ἀρχή도 “시작”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가복음 1:1의 ἀρχή 뒤에 어떤 아람어/히브리어 표현이 뒤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없고, ‘시작’은 책의 제목으로서는 어색하므로,⁴⁶⁾ ἀρχή를 반드시 ‘시작’으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 비록 마가복음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는 “시작”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지만(10:6; 13:8, 19),⁴⁷⁾ 이 단어는 “초보”(“a basis for further understanding”⁴⁸⁾라는 뜻도 가진다. 실제로 히브리서 5:12(τὰ

46) N. C. Croy, “Where the Gospel Text Begins”, 125.

47) M. E. Boring, *Mark: A Commentary, The New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6), 31.

48) BDAG, 138.

στοιχεία τῆς ἀρχῆς τῶν λογίων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기본 원리들”), 6:1(τὸν τῆς ἀρχῆς τοῦ Χριστοῦ λόγον, “초보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 단어는 그렇게 쓰였다. 마가복음 1:1에서도 이러한 경우들처럼 ‘초보’(첫걸음), ‘기초’라고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⁴⁹⁾ ‘입문’도 “초보”라는 뜻에 해당하는 말로서 책의 제목에 쓰기에 적합한 단어이므로, 마가복음 1:1의 ἀρχή는 “입문”(introduction)으로도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성서를 오래 접해온 사람들을 위한 교회용 번역을 위해서는 ‘입문’이,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번역을 위해서는 좀더 친근한 ‘첫걸음’이 좀더 적합할 것이다.

후커(M. D. Hooker)는 세례 요한을 복음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이 사도행전에도 나타난다고 지적한다(행 1:22; 10:37; 13:24-25).⁵⁰⁾ 이러한 지적이 옳다면 마가복음의 초두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등장하므로 ἀρχή는 “시작”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마가복음 1:1은 마가복음 초두의 세례 요한 이야기의 제목이 된다. 그렇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가복음은 다른 곳에서 단락 제목을 두지 않으므로 유독 초두에서만 단락 제목을 두었을 가능성이 낮다. 또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누가의 관점을 마가가 그대로 공유했을 필연성은 없다. 더구나, 후커가 제시한 본문들은 예수의 복음이 요한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후커의 주장은 마가복음 1:1의 ἀρχή를 ‘시작’으로 번역할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 본 증거들은 마가복음 1:1에서 ἀρχή를 ‘입문’으로 번역할 수 있음을 지지한다. 그러나 ἀρχή는 기원이라는 의미도 가진다.⁵¹⁾ 만일 ἀρχή를 ‘기원’이라고 번역하면 마가복음 1:1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원’으로 번역된다. 이 경우 마가복음 1:1은 마가복음의 제목으로서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소개한다. 마가복음은 예수에 관한 복음이 어떻게 기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으로 소개된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마가복음은 복음 자체를 담고 있기보다 복음이 기원하게 된 이야기를 담은 책이 된다. 이 경우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서에 담긴 예수 이야기와 구별되어 예수께서 메시아이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초대교회의 선포를 가리키게 된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선포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아니라 예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 자체나 예수에 관한 이야기 자체를 가리키

49) 참조, M. E. Boring, “Mark 1:1-15 and the Beginning of the Gospel,” 52. W. Eckey, *Das Markusevangelium*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8), 53-54는 이 가능성을 고려하며 주해한다.

50) M. D. Hooker,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33.

51) BDAG, 138.

며, 마가복음이 이미 복음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아래 참조). 따라서 ἀρχή를 ‘기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보링(M. E. Boring)은 누가복음 12:11; 20:20에 따라 ἀρχή를 ‘권위’(authority)로 번역하든지, 로마서 8:38; 고린도전서 15:24; 에베소서 1:21; 3:10; 골로새서 1:16; 2:10; 디도서 3:1의 용례에 따라 ‘표준’(norm, rule, ruler)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⁵²⁾ 그러나 이 구절들에서 ἀρχή는 표준이 아니라 권력(자)을 가리킨다. 비록 ἀρχή를 ‘표준’으로 이해하면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표준’으로 번역되어 책 제목으로서 적합하지만, 보링이 제시하는 신약성서의 용례들은 실제로 ἀρχή를 ‘표준’으로 번역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 용례들은 ‘권위’라고 번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라는 표현은 책 제목으로서 어색하다.

3.3. εὐαγγέλιον - ‘복음’인가, ‘희소식’인가?

마가복음 1:1에서 두 번째 단어는 εὐαγγέλιον이다.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가?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은 εὐαγγέλιον을 전문용어로 간주하여 ‘복음’(gospel)에 해당하는 단어로 번역한다. 영어 성경번역들(DRA, ESV, GNV, KJV, NAB, NIV, NJB, NKJ, RSV, WEB 등)은 대개 ‘gospel’(복음)이란 단어로 번역하였고, 독일어 성경번역들(EIN, ELB, ELO, L45, LUO, LUT, SCH 등)은 ‘Evangelium’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프랑스어 성경번역들(DRB, FBJ, LSG, NEG, TOB)은 ‘Évangile’(복음)를, 네덜란드어 성경번역들(NBG, SVV 등)은 ‘Evangelie’(복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εὐαγγέλιον은 일반 용어로서 ‘기쁜 소식’(희소식)에 해당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한국어 성경번역들 중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이 ‘기쁜 소식’으로 번역하였으며, 영어 성경번역들 중에서는 BBE, NRS, YLT, NLT, CEV 등이 ‘good news’(좋은 소식)를, DBY는 ‘glad tidings’(반가운 소식)를 번역어로 사용하였고, 프랑스어 성경번역들 중에서 BFC는 ‘Bonne Nouvelle’(좋은 소식)를, 네덜란드어 성경번역 LEI는 ‘Heilmare’(희소식)를 번역어로 채택하였다.

마가는 왜 예수 이야기를 εὐαγγέλιον이라 불렀을까? 이 단어가 가지는 뉘앙스 때문일 것이다. 70인역 사무엘하 4:10에서 이 단어는 εὐαγγέλια라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소식”을 가리킨다. 70인역 사무엘하 18:20, 22, 25, 27에서 여성형 εὐαγγελία는 “소식”을 가리키는데, 문맥상 전승 소식이다. 70인역 열왕기

52) M. E. Boring, *Mark: A Commentary*, 32.

하 7:9에서 이 단어는 적군이 물러갔다는 기쁜 소식을 가리킨다. 헬라 문헌 Philostratus, *Life of Apollonius of Tyana* 5.8에서도 εὐαγγέλιον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관련되므로,⁵³⁾ 헬라 독자들은 εὐαγγέλιον이란 단어를 전승 소식의 뉘앙스를 가진 것으로 읽었을 것이다. 70인역 이사야 40:9에서는 동일 어근을 가진 단어 εὐαγγελιζόμενος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문맥상 이사야 40:1-8에 담긴 새 출애굽의 소식을 전한다는 뜻이다. 마가복음이 예수의 이야기를 εὐαγγέλιον이라 부르는 이유는 예수의 사역이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 포로들을 해방시키는 새 출애굽 사역이라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의 새 출애굽 사역은 사탄과 (사탄에 의해 조종되는) 인간들에 대한 승리이므로,⁵⁴⁾ 마가는 예수 이야기를 가리키기 위해 전승의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εὐαγγέλιον이란 용어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εὐαγγέλιον에 담긴 이러한 새 출애굽과 전승의 소식이라는 뉘앙스를 ‘복음’이란 단어에 담을 수 없다. 이 단어는 종교적인 뉘앙스를 가지게 되어 출애굽이나 전승의 뉘앙스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소식’이 번역어로써 더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εὐαγγέλιον은 황제 숭배와 관련하여 황제의 생일, 등극, 방문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으므로,⁵⁵⁾ 종교적인 뉘앙스를 가진 ‘복음’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회에서 예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번역되는 성경을 위해서는 번역 전통을 존중하여 ‘복음’이란 용어를 계속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마가복음 이전에 어떤 책도 ‘복음’(εὐαγγέλιον)이라는 이름을 가진 책은 없다.⁵⁶⁾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의 εὐαγγέλιον은 독자들에게 특정한 책의 장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이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가도 그러한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마가복음에서 εὐαγγέλιον은 예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1:14-15) 또는 예수에 관한 메시지를 가리킨다(8:35; 10:29; 13:10; 14:9). 마가복음 1:1에서는 εὐαγγέλιον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가리킬까? 즉, 마가복음 1:1에서 εὐαγγέλιον Ἰησοῦ(‘예수의 복음’)는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란 뜻일까, 예수에 관한 복음이라는 뜻일까? 소유격의 용법 중에는 주어적 용법(subjective genitive)과 목적어적 용법(objective genitive)이 있다.⁵⁷⁾ 소유격 Ἰησοῦ를 주어적인 의미로 읽으면 εὐαγγέλιον Ἰησοῦ는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란 뜻이고, 이것을 목적어적인 의미로 읽으면 예수를 전하는 복음이란 뜻이

53) J. Marcus, *Mark 1-8,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2000), 146.

54) Ibid. 참조.

55)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Grand Rapids: Eerdmans, 2002), 52.

56) M. D. Hooker,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33.

57) BDF, §163.

다.

번역 성경들 대부분은 주어적 용법인지 목적어적 용법인지 해석하지 않고 소유격 형태를 살려서 ‘예수의 복음’이라고 직역한다. 그러나 영어 성경번역 NIV, NJB, NLT는 소유격 Ἰησοῦ를 목적어적으로 해석하여 ‘about Jesus’(예수에 관한)라고 하며, 네덜란드어 성경 LEI도 그렇게 해석하여 ‘omtrent Jezus’(예수에 관한)라고 번역한다. 한글 번역 중에는 『현대인의 성경』(‘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과 『공동』(‘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Ἰησοῦ를 목적어적 의미로 해석한다.

소유격 Ἰησοῦ를 주어적으로 해석하여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전하신 메시지만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이야기도 담고 있다. 따라서 εὐαγγέλιον Ἰησοῦ가 마가복음을 가리킨다면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복음’이 번역해야 마가복음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번역이다. 따라서 마가복음 1:1에서 εὐαγγέλιον Ἰησοῦ는 ‘예수에 관한 복음’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번역을 위해서는 여러 번역 가능성 중에서 가장 저자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해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문 자체가 애매하여 여러 가지 주해 가능성을 내포한 경우에는 억지로 한 가지 가능성을 택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억지 선택은 번역 성경을 읽는 독자의 선택의 폭을 좁히기 때문이다. εὐαγγέλιον Ἰησοῦ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비록 ‘예수에 관한 복음’이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보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판단되지만, 본문 자체가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을 가진 소유격으로 되어 있으므로, 번역도 이 형태와 가능성들을 살려서 ‘예수의 복음’이라 직역할 수 있을 것이다.⁵⁸⁾ 교회에서 사용할 예배용 성경을 위해서는 이러한 직역이 좀 더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비기독교인들, 어린이들, 또는 기독교 입문자들을 위한 번역을 위해서는 번역자의 수고를 통해 선택된 ‘예수에 관한 희소식’이란 번역을 택하여 독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 좋을 것이다.

3.4. Χριστός는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가?

대부분의 번역성경은 마가복음 1:1에서 Χριστός를 ‘Christ’(영어, 프랑스어),

58) R. T. France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53). 양용의도 그의 스승 France의 견해를 따라간다(양용의,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0], 38).

‘Christus’(독어, 네덜란드어) 등으로 번역하지만, 영어성경 NLT는 이를 ‘Messiah’(메시아)로 번역한다. 한글번역은 『개역』, 『개역개정』, 『새번역』, 『표준』, 『현대인의 성경』, 『공동』, 『공동개정』이 모두 ‘그리스도’라는 번역을 택한다.

‘Christ,’ ‘Christus,’ ‘그리스도’는 Χριστός의 음역이고, ‘Messiah,’ ‘메시아’는 히브리어 מָשִׁיחַ의 음역이다. 이러한 음역들은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 의미를 전달하는 용어로 번역하려면 우선 이 단어의 뜻을 연구해야 한다.

본래 ‘메시아’는 기름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메시아’란 기름부음을 받아 특별한 지위를 얻은 자로서 왕이나 제사장이 이에 해당한다(삼상 15:1; 24:6; 레 4:5, 16). 쿵란 문헌 1Q28a 2:12에서는 ‘그 메시아’(הַמָּשִׁיחַ)라는 용어가 왕, 제사장 등의 단어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된다.⁵⁹⁾ ‘메시아’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된 것은 이 단어가 원래의 의미에서부터 파생된 독특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메시아’는 예수 시대에 와서는 종말론적 구원자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 기대된 자를 가리키게 되었다.⁶⁰⁾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선택하여 번역하면 좋을 것이다. 한국어로는 ‘구세주’가 유사한 의미를 전달한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군사력을 사용하여 언약 백성의 원수들을 제압하는 구원자였다. 예를 들어, 쿵란 문헌 CD 19:5, 10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칼에 넘겨질 것이라 한다.⁶¹⁾ 1세기 유대 문헌 에즈라 4서(4 Ezra) 12:32에 의하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하고, 이방인들을 멸한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이방 민족들을 제압하는 군사적 영웅으로 기대되었고 그러한 기대는 솔로몬의 시편 17:23-30(특히 17:24)에도 잘 나타난다.⁶²⁾ 여기서 메시아는 죄인들을 벌하는 군사적 영웅으로 등장하는데,⁶³⁾ 다윗의 자손이라 불린다(17:21, 32).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의 시편 17:21에서 메시아 칭호로 등장한다.⁶⁴⁾

59) J. R.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Grand Rapids: Eerdmans, 2002), 249-250.

60) L. W. Hurtado, *Mark*, NIBC (Peabody, MA: Hendrickson, 1983), 250.

61) F. G. Martínez and E. J. C. Tigchelaar, trans. and ed., *The Dead Sea Scrolls*, vol.1 (Leiden: Brill, 1997), 574-577.

62) J. R.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250-251.

63) *Ibid.*, 330.

64) M. D. Hooker,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252.

주여, 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왕, 다윗의 자손을 일으키시어 당신
 의 종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소서. (솔로몬의 시편, 17:21)⁶⁵⁾
 그들의 왕은 주 메시아이실 것이다. (솔로몬의 시편 17:32)⁶⁶⁾

‘다윗의 자손’은 랍비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킨다.⁶⁷⁾ 아마 예
 수 당시도 그러하였을 것이다. 이 다윗의 아들 메시아는 다윗 왕국을 재건할
 것으로 기대되었다.⁶⁸⁾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의 시편을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킨
 다.⁶⁹⁾ 솔로몬의 시편 17:32에는 “그들의 왕은 주 메시아이실 것이다”라고 하
 므로, ‘다윗의 자손’은 결국 메시아 칭호이다.⁷⁰⁾ 그런데, ‘다윗의 자손’은 군사
 적인 메시아이다. 솔로몬의 시편 17:21-32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
 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이방인들로부터 정화시키며 거룩한 백성을 모아
 열방을 심판하고 메시아가 될 것이다.⁷¹⁾

그[다윗의 자손]를 능력으로 뒷받침하사, 불의한 통치자들을 멸하시고, 예
 루살렘을 짓밟아 파괴하는 이방인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소서.
 (솔로몬의 시편 17:22)⁷²⁾

그들[이방인들]의 모든 존재를 쇠막대기로 부수고 불의한 민족들을 그[다
 윳의 자손]의 입의 말씀으로 부수도록 [일으키소서]. (솔로몬의 시편 17:24)⁷³⁾

그리고 그는 이방 민족들이 그의 멩에를 매고 섬기게 할 것이며, 그는 온 땅
 [위에] 뛰어난 [곳]에서 주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을 정결
 하게 하고 [그것을] 처음부터 그러하였듯이 거룩하게 [할] 것이다. (솔로몬의
 시편 17:30)⁷⁴⁾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유대 문헌에서 사용된 개념을 토대로 사용되었
 을 것이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독특한 의미로 사용되었을 수

65) R. B. Wright (translation, introduction, notes), “Psalms of Solomon”, J. H. Charlesworth 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2 (New York: Doubleday, 1985), 667.

66) Ibid., 667.

67) C. A. Evans, *Mark 8:27-16:20*, WBC 34B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1), 272.

68) J. Marcus, “Mark 14:61: Are You the Messiah-Son-of-God?”, *NovT* 31 (1989), 137.

69) J. R. Donahue and D. J. Harrington, *The Gospel of Mark*, Sacra Pagina Seres 2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2), 323.

70) J. R. Donahue and D. J. Harrington, *Mark*, 325 참조.

71) Ibid., 361.

72) R. B. Wright, trans., “Psalms of Solomon”, 667.

73) Ibid., 667.

74) Ibid.

있다. 마가복음의 번역자는 이 단어를 그것의 일반적 의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마가복음의 용례를 살펴서 마가가 이 단어에 담은 의미를 살려 번역해야 한다.

마가복음 8:29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Χριστός라 고백한다. 예수 자신도 이러한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막 14:61-62). 다만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막 8:31).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므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막 8:32). 베드로가 보기에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다.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는 비판당한다(막 8:33).

마가복음 12:35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 칭호였음을 알려주는데,⁷⁵⁾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러한 다윗의 자손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신다(막 12:36-37). 따라서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가 군사적 메시아, 유대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님을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진술을 번역할 때, 군사적 메시아 개념을 가진 용어로 번역하면 안된다.

마가복음 14:61-62에서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신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임을 부연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간주한다(막 14:64). 그러므로 예수의 주장은 자신의 신성에 관한 주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마가복음 14:61은 ‘그리스도’와 ‘찬송 받을 자(하나님)의 아들’을 동의어로 사용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시편 2편에서도 그리스도(메시아)를 가리키는데, 세계를 통치하는 왕적인 존재로 소개된다. 이러한 존재를 ‘이스라엘의 왕’이라 부르기도 했음을 마가복음 15:32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는 군사적 존재는 아니며 고난을 받아 죽고 부활하는 존재이다. 군사적 방법을 써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천상적인 존재로서의 메시아이다.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마가복음을 읽으며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이러한 의미를 집어넣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고 음역해도 결국 뜻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마가복음 1:1을 읽는 순간에는 독자들이 아직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내재적 독자의 상황과 다르다. 마가복음은 구약성서를 아는 이방인들을 독자로 가정하고 기록되었다. 구약성서를 안다고 가

75) L. W. Hurtado, *Mark*, 174.

정하기에 마가복음 1:2-3에서 구약성서가 인용되며, 이방인이라고 가정하기에 마가복음 7:3-4에서 유대인의 관습이 설명된다. 이러한 독자들은 구약성서를 배경으로 하여 마가복음 1:1을 읽을 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가는 히브리어 מָשִׁיחַ를 음역하지 않고 헬라어로 그 의미(“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번역하여 Χριστός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독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이러한 마가의 정신에 따라 마가복음 1:1을 번역한다면 Χριστός는 ‘그리스도’라고 음역되기보다는 이 단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용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군사력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적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신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단어로써 ‘구세주’(또는 ‘구주’)를 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단어를 교회에서 사용할 성경에 도입하는 것은 좀 어색하다. 예를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 주 예수 구세주’라고 번역하면 ‘주’가 두 번 반복되는 문제도 있다. 또한 이 번역어는 σωτήρ의 번역어 ‘구주’와도 잘 구별되지 않는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음역임에도 불구하고 ‘구세주’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의 일부 또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대한 구원자를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되므로(8:29; 14:61),⁷⁶⁾ 번역할 때 이름으로 오해되는 용어를 피해야 한다. 더구나 어차피 음역을 택해야 한다면, 번역어인 Χριστός(‘그리스도’)보다는 그 뒤에 있는 히브리어 원어 מָשִׁיחַ를 음역한 ‘메시아’를 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성서 번역 전통과 본문과의 형태적 일치를 존중한다면 예배용 성경을 위해서는 계속 ‘그리스도’를 번역어로 택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은 문제는 군사적 영웅의 의미를 갖지 않는 단어의 선택이다. ‘구세주’는 군사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으므로 적당한 단어이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약점으로 인해 교회용 성경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메시아’(또는 ‘그리스도’)는 본래 군사적 영웅을 가리키므로 사용이 곤란한 점이 있지만 예수와 연결되어 사용될 때에는 그렇게 오해되지 않으므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4. 맺음말

외증과 내증을 고려할 때, 마가복음 1:1의 원본문은 Ἀρχὴ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76)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50.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이라고 판단된다.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하는 헬라어(υἱοῦ θεοῦ)는 원래의 읽기가 아닐 것이다. 정관사가 빠진 υἱοῦ θεοῦ는 마가복음의 문체에 맞지 않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추가하는 경향성이 편집자나 필사자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마가복음의 중심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추가되었을 것이다.

정관사 없는 명사는 종종 책 제목에 사용된다. 마가복음 1:1은 정관사 없는 명사로 시작하며 동사도 없으므로 본문의 일부가 아니라 제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마가복음은 다른 곳에서 단락 제목을 붙이지 않으므로 마가복음 1:1은 첫 단락의 제목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제목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끝에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하며 본문의 일부가 아니므로 2절과 한 줄 이상 떼어 써야 한다.

마가복음 1:1은 교회에서의 사용을 위해서는 “메시아 예수의 복음 입문”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번역은 다소 전통적이지만 기존의 번역과 다른 점이 있다. ‘그리스도’ 대신에 ‘메시아’를 택하면 ‘그리스도’가 이름으로 여겨지는 오해를 막으면서,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다. 특히 ‘시작’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초보”(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기초)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므로 ‘입문’(또는 ‘기초’)이라 번역하면 제목의 역할을 하는 마가복음 1:1의 기능에 적합할 것이다.

교회용 성경 중에서도 특히 예배용 성경을 위해서는 교회가 계속 사용해온 번역 전통을 고려하여 가급적 기존의 예배용 번역(『개역개정』)을 바꾸지 말고, 본문 비평과 주해의 결과 문제가 되는 것만을 고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상과 소통하여 비기독교인들(또는 어린이, 초신자)에게 마가복음의 내용을 잘 전달하려면, “구세주 예수에 관한 희소식 첫걸음”이라고 친절하게 번역할 수 있다. 우선 ‘입문’보다는 순우리말로써 친근감을 주는 ‘첫걸음’이 소통을 위하여 더 적합할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해되기도 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므로 종말론적 구원자로서의 의미를 살려 ‘구세주’라는 번역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주해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수의 복음’이라는 번역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예수에 관한 희소식’으로 번역하면 좋을 것이다. ‘복음’ 뒤에 놓인 헬라어는 출애굽(해방) 소식의 뉘앙스를 가지므로 ‘희소식’이라고 번역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물론 이 헬라어는 로마 황제 숭배와 관련하여 종교적 뉘앙스도 가졌으므로 역시 종교적 뉘앙스를 가진 ‘복음’이라고 번역해도 좋다. ‘예수의’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형태(소유격)는 주어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예수께서 전하신’)

목적어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며(‘예수에 관한’),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만을 담은 책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므로, 마가복음의 제목인 1:1의 Ἰησοῦ(‘예수의’)는 ‘예수에 관한’으로 번역하면 좀 더 구체적이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마가복음 1:1의 본문과 번역은 다음과 같다.⁷⁷⁾

본문	Ἀρχὴ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예배용 성경 번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교회를 위한 번역	메시아 예수의 복음 입문
세상을 위한 번역	구세주 예수에 관한 희소식 첫걸음

<주요어>(Keywords)

마가복음 1:1, 본문 비평, 주해, 번역, 복음

Mark 1:1, textual criticism, exegesis, translation, gospel

(투고 일자: 2011. 8. 12, 심사 일자: 2011. 8. 25, 게재 확정 일자: 2011. 9. 21.)

77) 이러한 다양한 번역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관하여는 서론에서 언급한 스킵로스 이론 참조.

<참고 문헌>(References)

- 신현우, 『마가복음의 원문을 찾아서』, 서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2006.
- 양용의,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0.
- 周大璞(주대박), 『训诂学初稿』, 第三版, 武汉: 武汉大学出版社, 2007.
- Aland, B. et al., eds., *Novum Testamentum Graec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 Bauer, Walt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Frederick William Danker, ed., 3rd ed.,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2000. [= BDAG]
- Blass, F., and Debrunner, A.,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R. W. Funk, trans. and revis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BDF]
- Boring, M. E., “Mark 1:1-15 and the Beginning of the Gospel”, *Semeia* 52 (1991), 43-81.
- Boring, M. E., *Mark: A Commentary*, The New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6.
- Croy, N. C., “Where the Gospel Text Begins: A Non-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Mark 1:1”, *NovT* 43 (2001), 105-127.
- Donahue, J. R. and Harrington, D. J., *The Gospel of Mark*, Sacra Pagina Seres 2,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2.
- Eckey, W., *Das Markusevangelium*,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8.
- Edwards, J. R.,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Grand Rapids: Eerdmans, 2002.
- Ehrman, B. D., *The Orthodox Corruption of Scrip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Evans, C. A., *Mark 8:27-16:20*, WBC 34B,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1.
- France, R. T., *The Gospel of Mark*, Grand Rapids: Eerdmans, 2002.
- Globe, A., “The Caesarean Omission of the Phrase ‘Son of God’ in Mark 1:1”, *HTR* 75 (1982), 209-218.
- Guelich, R. A., “‘The Beginning of the Gospel’ Mark 1:1-15”, *Papers of the Chicago Society of Biblical Research* 27 (1982), 5-15.
- Head, P. M., “A Text-critical Study of Mark 1.1”, *NTS* 37 (1991), 621-629.
- Holmes, M. W., ed., *The Greek New Testament*, Atlanta: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0.

- Hooker, M. D.,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London: A. & C. Black, 1991.
- Hurtado, L. W., *Mark*, NIBC, Peabody, MA: Hendrickson, 1983.
- Hutchison, D., “The ‘Orthodox Corruption’ of Mark 1:1”, *Southwestern Journal of Theology* 48 (2005), 33-48.
- Marcus, J., “Mark 14:61: Are You the Messiah-Son-of-God?”, *NovT* 31 (1989), 125-141.
- Marcus, J., *Mark 1-8*,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2000.
- Martínez, F. G., and E. J. C. Tigchelaar, trans. and ed., *The Dead Sea Scrolls*, vol.1, Leiden: Brill, 1997.
- McReynolds, P. R., “Establishing Text Families”, W. D. Flaherty, ed., *The Critical Study of Sacred Text*, Berkely: Graduate Theological Union, 1979, 97-113.
- Metzger, B. M.,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 Slomp, J., “Are the Words ‘Son of God’ in Mark 1.1 Original”, *The Bible Translator* 28:1 (1977), 143-150.
- de Vries, L., “Translations of the Bible and Communities of Believers”, 「성경원문연구」 23 (2008), 172-195.
- Wasserman, T., “The ‘Son of God’ Was in the Beginning (Mark 1:1)”, *JTS* ns 62 (2011), 20-50.
- Wright, R. B. (translation, introduction, notes), “Psalms of Solomon”, J. H. Charlesworth, 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vol. 2, New York: Doubleday, 1985, 639-670.

<Abstract>

Textual Criticism and Translation of Mark 1:1

Prof. Hyeon Woo Shin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In Mark 1:1, υἱοῦ θεοῦ ('Son of God') may not be original. Though it is supported by significant external evidence, its omission is also supported by diverse kinds of external evidence: early Alexandrian manuscripts (Ⲛ^{sa}ms), the so-called 'Caesarean' manuscript (Θ), a number of Church Fathers and ancient versions. Further, υἱοῦ θεοῦ does not fit the style of Mark since Mark elsewhere uses τοῦ θεοῦ instead of θεοῦ (3:11; 5:7) except in 15:39 where the word θεοῦ may have originally been spoken in Latin (that does not have the definite article) by a Roman centurion. Though υἱοῦ θεοῦ could have been omitted by *homoeoteleuton*, the omission of 'Son of God' did not occur elsewhere in the NT whereas the addition of 'the Son of God' took place in Mark 8:29 as P. M. Head pointed out. T. Wasserman argued that in Mark 8:29, 'the Son of God' in some manuscripts is a harmonization to Matthew 16:16. The possibility of scribal addition, however, cannot be excluded. 'The Son of God' in Matt 16:16 reflects the redactional tendency of adding 'the Son of God.' The copyists of Mark may also have had such a tendency.

Anarthrous construction is often used for titles. Since ἀρχή ('beginning,' 'basis') does not have the definite article and has no verb, Mark 1:1 is likely to be a heading. Mark does not have any section heading elsewhere, and thus Mark 1:1 may be a heading for the whole text of Mark. R. A. Guelich argued that v. 1 is connected to v. 2 since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as it is written') is always connected to the preceding elements elsewhere in the NT. The καθὼς ('just as') clause, however, is also used elsewhere in connection with its subsequent phrase, so(?) vv. 2-3 can be connected to v. 4. This possibility is supported by the parallelism between v. 3 and v. 4.

The word ἀρχή can mean "a basis for further understanding" as in Heb 5:12; 6:1. This meaning fits with the function of Mark 1:1, and thus this word, as a part of the heading of Mark, can be translated as 'introduction'.

In the LXX, the words, εὐαγγελίου and εὐαγγέλια refer to (good) news, and in Isa 40:9 (the LXX), the verb εὐαγγελίζομαι is used for preaching new exodus message. In Mark, εὐαγγελίου refers to the message about Jesus (8:35; 10:29; 13:10; 14:9) or the message proclaimed by Jesus (1:14-15). Hence, ‘good news’ is a proper translation for εὐαγγελίου. However, since εὐαγγελίου had a religious nuance on account of its usage for the emperor’s birth, enthronement, visiting, in connection with the Roman emperor worship, εὐαγγελίου may also be translated as ‘gospel’ that has a religious nuance.

‘Gospel about Jesus’ (the objective genitive) seems to be a better translation for εὐαγγελίου Ἰησοῦ than ‘gospel (proclaimed) by Jesus’ (the subjective genitive). Since Mark 1:1 is the heading of Mark, ‘the gospel about Jesus’ better fits its context than ‘the gospel proclaimed by Jesus.’ ‘The message proclaimed by Jesus’ cannot represent the whole of Mark, but it can be called ‘the message about Jesus.’

In Mark, the word Χριστός is not yet used as a name of Jesus but as a title for the eschatological saviour sent by God (8:29; 14:61). Since the word ‘Christ’ is often misunderstood as a name of Jesus, ‘Messiah’ may be better than ‘Christ’ as a translation for Χριστός.

In conclusion, the original text of Mark 1:1 may have been Ἀρχὴ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and it can be translated as ‘Introduction to the Good News about Jesus the Messiah.’ As a heading of Mark, it needs to be capitalized and spaced apart from verse 2.